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一六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無盡會社內容改善의必要
三無盡合同에際하야

一

오랫동안 懸案이 되어잇든 京城府內 無盡會社合同問題는 마츰내 去十二日 慶德無盡을 除한 共濟、興業、共立의 三無盡會社關係者의 合同調印과 同時에 資本金五百萬圓의 中央無盡을 新設하기로 되어 一段落을 告하게 되엇는데 今回의 合同實現에 依하야 强力會社가 出現하게되고 따라 그信用程度를 노피게되어 無盡本來의 使命을 遂行할수잇게된다면 一般庶民金融을 爲하야 이도한 歡迎할일이어니와 吾人으로서는 合同에 依한 基礎鞏固化以上으로 無盡會社의 內容을 改善할 必要가 잇슴을 痛感하는者이니 當局은 勿論 無盡關係者들도 今回의 合同을 契機로 營業內容을 改善하야 無盡利用者의 不便과 不利를 除去하도록 努力함이 急先務가 아닐가한다。

二

無盡이란 元來 共助共濟의觀念에 基하야 起한것으로 無盡의 定義는 多數人의 集合據金에 依한 相互的貯蓄及 金融機關이라고할수잇고 그長所라고 볼만한것은(一) 細民의 加入이 容易한것 (二)細民의 貯蓄心을 涵養하는것 (三)貸付金利의 比較的低廉한것 (四)信用貸付를 行하는것 (五)農商工資金을얻는 方法으로 適宜한것 (六)返濟年限이 長期로 月賦償還의 便宜가 잇는것 等이 列擧되고잇는데 事實 無盡의組織을 鞏固한 基礎우에두고 그經營方法만 適宜함을 엇는다면 無盡이 庶民金融에 寄與하는바 적다할수업는바일것이다。그러나 現今의 無盡과가티 (一)營業者의 基礎薄弱에 加하야 (二)手續上의不便이 頗多하고 (三)手數料其他의名義로 營業者의 取得하는 金額이 過多하며(四)營業者의 帳簿가 不明한것 等 여러가지 缺點이 잇서서는 無盡特有의 長點도 도로혀 抹殺될뿐아니라 利用者로하여금 도로혀 無盡의 正體에 對하야 疑訝症을 가지게하야 마치 市中에 一時 橫行하든 不正契種類와가티 一種의 詐欺團體인것가튼 印象을주어 無盡本來의 使命을 다하지못할은 勿論 甚하면 社會에 對하야 有害한 存在로 생각하게되는것이다。

三

事實 無盡이든 무엇이든 社會에 有害無益한것이라면 그存在는 업는것만 갓지못한것이다。無盡의 手續上不便과其他를 此欄에서 一一히 列擧하기는어려우나 多數의 經驗談에 依하야 이를 要約하면 無盡加入者는 貯蓄보다는 資金融通을爲해 加入하는 者 大多數일것은 勿論인바 落札形式이므로 落札은容易치안허 及其也 他人의落札된것을 利用하게되면 所謂 讓利金이라고稱하는 多數의 金額을 支拂하고 또 讓利者의 拂込濟全額을 返濟하므로 結局融通金額은 極少額에 끄치게되어 低利는커녕 高利의貸付를 免치못할것은勿論이며 그러고도 自己名義의分도 繼續支拂하여야 되므로 負擔過重으로 責任履行이 困難하고 다음落札金額의 競爭도 亦是 高利를 誘致하게되는것이며、落札과 利用이 모다 不可能한때에 中途에 中止하는 者는 拂込濟金額을 即時返濟치안는 것 뿐아니라 어도한 契約金의 三分乃至五分의 過多한 手數料를 徵收하므로 結局 貯蓄이라기보다는 損失을 보게되는것이다。

四

이것에 끈치지안코 無盡規定에업는 貸付其他의行爲도 暗暗裡에 行하는데 이것을 口實로 無盡勸誘를하엿다가 貸付도하지안코 加入無盡의 落札도되지안허 不動産賣買等에 狼狽본者도 一、二가아니며 또 落札에依하야 貸付한것도 加入者의 事情으로 一時償還코저하면 또 多額의 手數料를 徵收할뿐아니라 그手續이 如于 까다롭지안흐며、信用貸付라는것도 保證人二人을 要하고 또 擔保라 稱하야 다시 一口의 無盡에 加入치안흐면 안되므로 有名無實이며 其他手續上의 不便、不良外交員의 跋扈等을 列擧한다면 無盡會社의 裏面에는 歡迎치못할 可驚할 事實이 一二로 算할바 아닐것이다。이러한 諸點을 考慮한다면 合同에 依한 基礎確立은 勿論 歡迎할일이나 이보다먼저 無盡營業의 內容을 徹底的으로 改善하야 利用者에게 一點의 疑惑이나 또는 少額의 不利不便이업게할것은勿論、無盡本來의 使命인中小業者에 對한 金融疏通의 圓滑、低金利、月賦長期償還等의 長點을 發揮할수잇도록 하여야 할것이니 이點에 對하야 業者의猛省을促하는 同時에 當局者의 深甚한 考慮가잇기를 期待하야 마지안는바이다。

不信任案提出하면 總辭職? 再解散?
政府、政黨一戰難免
一般은總辭職을當然視하나 政府態度는依然强硬

【東京電話同盟】第二十回總選擧戰은今後十日後에 嚴正한 國民의審判이 내리게되엿는데 形勢는 政民兩黨에 極히 有利하게展開되야 壓倒的勝利는 明確히되엿다 따러서 總選擧後의政局에 關하야 一般이 林內閣은 當然히退却할밧게업다고 豫想하고잇슴에反하야 林內閣自體는 어데까지던지 굿세게나가 總辭職等은 念頭에두지안코 着着總選擧後의特別議會에對한準備를 進行하고잇는것은 極히注目된다 一般情勢로觀察할때에政府가 衆議院에多數를擁하는政黨이 時局에對한認識을달리한다고 斷乎議會解散을 奏請한以上 總選擧에當하야 國民審判의結果 再次政民兩黨이多數를獲得한以上 政府는挂冠할것이當然하다고생각되나 林首相은 重大時局擔當의重責을지고 組閣에선以上 輕輕히그進退를 決할 것이아니라는信念으로부터 總選擧後의特別議會는 반듯이 現內閣에 依하야 召集을 奏請하고 特別議會에는 旣報 第七十議會에서 不成立으로된 國民健康法案 農地法案 關稅改正法案 燃料國策關係法案 製鐵事業法案等의重要法案及 企畫廳設置에伴하는 追加豫算案及 商法委員會改組에要하는 追加豫算案을 提出하야 成立을期할 方針을明白히 하엿다 一方이에對하야 政民兩黨이 特別議會에 臨하야 如何한 態度를 取할가가 興味의 焦點이며 政民兩黨은 今回總選擧에 際하야 反政府氣勢를 昂揚하고 總選擧後에 잇서서는 現內閣의 存立을 不許한다는 立法을 가진以上 當然히 特別議會開會劈頭內閣不信任案을 提出하야 堂堂히 政府와 一戰할것이라고觀測되나 事實은 不信任案을 提出하는境遇는 政府가再解散을敢行할지도모르는 形勢에잇고 兩黨間에 그議가一致되지못할것이라는 觀測도 行하며 또政府의新黨運動도今回의 技術的解散에依하야 挫折狀態를招來하야 選擧後에잇서서도 活潑한 動向은觀測되지못할수업는等의 情勢에徵하야 結局總選擧後의 政局은 當分不明朗한대로 推移하는것이아닌가하는 觀測이有力하다

天皇皇后兩陛下 明治神宮御親拜

【東京電話同盟】天皇 皇后兩陛下께압서는 二十日 御同伴하사 明治神宮에 行幸啓、御參拜하압신後 完成된 外苑의 聖德記念繪畫館에 나압시사 明治大帝의 御遺德을 御思慕하압시엿다 天皇陛下의 明治神宮御親拜는 昭和五年十一月 明治神宮 御鎭座十年祭 가게신 以來 御七年만이시오 또 皇后陛下께압서는 同六年十月 御參拜하압신以來 御六年만이시라고 拜聞된다 繪畫館에의 行幸啓는 今回가 御始初이시므로 奉讚會多年偉業의 最後를 자랑하는 光榮이라고 關係者一同은 感激하고잇다 그리고 十一時二十五分 天機및御機嫌 極히 御麗하압시게 諸員奉送裡에 繪畫館發御 宮城에 御還幸啓하압시엿다

日中經濟提携上 政治調整必要確認
國府의經濟統制權을認識하라
河相新情報部長談

【東京電話同盟】外務省情報部長에榮轉하기로된 上海總領事河相達夫氏는 十九日午前八時 東京驛着列車로 夫人 令息과同伴하야 歸國하엿는데 車中에서 左와如히말하엿다

經濟的으로 非常히 뒤떠러저 잇는 中國도 最近國民經濟가擡頭하야 漸次近代的 形態를 整備하는데 國民政府가 經濟組織上에 直接 間接으로 거의 全面的統制權을 갓게된것은 우리가 充分認識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金融界와 重要産業에는 거이直接支配權을 갓고잇고 貿易도 漸次國家管理로移行되는 傾向이잇다 그리고 其他의 經濟組織中에도 間接的支配權이 漸次로 强化되매따라 將來日中間에 眞正한 經濟提携를 實現하려면 國民政府를 相對로하지안흐면 안될것인바 日中間의 政治關係를 放置해서는 안될뿐더러 將來에도 積極的으로 調整을圖하여야할것이다 이때문에 此際 政府의最高不動의 方針을 速히 確立함이 무엇보담도必要하다

三相會議에서 蘇中方策確認

【東京電話同盟】東亞의 安定勢力으로稱하는 日本外交方策을强化하기爲하야 二十日午前十時부터 外相官邸에 三相會議를열고 佐藤外相 杉山陸相 米內海相의 三閣僚出席하야 佐藤外相으로부터 今後本格的으로 實踐하여나갈對蘇對中政策에關하야 그抱懷한意圖를詳細히 說明하고 陸海兩相의 諒解를求하엿는데 이에 對하야 兩相이모두 佐藤外相의 方針에 賛意를表하야 意見이 一致되엿스므로 同十一時散會하엿다 따러서 外相은 大體二十一日閣議에서 右三相會議의經緯및 決定한方針을 說明하야 承認을

中央經濟會議 議員은十五名
官制決定同時銓衡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日本內地及 外地의 綜合的根本經濟政策樹立及 其實施를 圖하기 爲하야 最高諮問機關으로 中央經濟會議를 設立하기로 決定하고 十五日 定例閣議에서 同會議의 要綱을 決定하엿다 政府의 諸問에 應하기 爲하야 日本內地 朝鮮 臺灣 滿洲國의 全經濟範圍에亘하야 鐵及 液體燃料 其他 重要産業의 資源開發 需給方策及 我國各種産業의 綜合的 振興計劃에 基한 具體的方策을 協議審議하고 答申에應한 重要使命을 가지는 만큼 林首相은 同會議의構成及 運營을 가장重大視하고 同會議의議員은 十五名前後로하되 專意向이다 그리고 同會議의議員人選은 近近同會議의 官制案이 正式決定된後 即時林首相 結城藏相手許에서 銓衡에着手하고大體로 五月中旬 企劃廳의事務開始와함께開會될터인데 其議員은大體로左와如하다

池田 成彬　各務 謙吉
鄕誠之助男　[illegible] 鐵一
平尾武三郞　大谷 登
牧田 環　津田 信吾
井坂 孝　藤原銀次郞
兒玉 謙次　串田 萬藏
明野重九郞

補助艦六隻(總噸數六萬三千噸)
米、又復建造乎
十九日上院海軍委員長이提案
『世界一』海軍目標로

【華府十九日發同盟】米國政府는 海軍無條約時代에 對處하야 名實共히 世界第一級 海軍을 整備할 方針下에着着 建艦工作을進行하고잇는데 上院海軍委員 울슨氏는 十九日 上院에 左의 補助艦建造案을 提出하엿다

一、補助艦六隻 總噸數三萬六千噸의 建造權限을 海軍省에 附與함
一、內譯
飛行艇母艦 一隻
驅逐母艦 一隻
掃海艇 一隻
潜行母艦 一隻
艦隊附屬輸送艦 一隻
給油船 一隻

國際平和會議召集
列國間進捗氣運
但、戴冠式後首相의印綬를띨
췸발린氏反對가問題

【倫敦十九日發同盟】白耳義首相 방·질란드氏가 루즈벨트大統領의 招請을 受諾하고 六月中旬 華盛頓에 出馬하야 經濟軍縮案에 對하야 協議하기로 決定한以來 國際經濟會議의 氣運은 갑작히 促進하게 되엿든바 히틀러總統이 十九日午後 란스베리氏와 會見하고 全般的會議參加에 同意를宣明한結果 經濟軍縮工作은 더욱 一步를 前進하게되엿다 即 獨逸政府가 所謂 孤立 自足의 經濟 政策을 固執하지 안흘것은 이미經濟相 샤하트 博士가 브랏셀에서 聲明한바이오 히틀러總統의 今回會見에서도 全然 蘇聯政府에는 言及치안코 會議에 蘇聯政府를보이코트할言을留保한것은 會議促進上 意義가重大하다고 觀測된다 히틀러總統이國際協調를 公約하는 同時에 軍縮의 急速化를示唆하엿는지그與否는 窺知할수업스나 獨逸政府의機關紙D·N·B가特히軍縮의範圍및課題에對하야 討議하엿다고 報道하고잇는것은 軍備制限에抵觸한것을말한것이다 一方루즈벨트大統領및 헐國務長官은國際經濟會議를 內心으로 期待하고工作하고 잇다고하는데 佛國外相델보스氏도 本會議의 開催를 希望하엿스며 獨逸政府가 全般的으로 會議에 參加를 表明한 結果 國際經濟會議의 開催는 英國의 決心如何에依하야 決定된다고 觀測되는데 自由黨及 勞働黨및 通商自由派는 英國政府가 關稅障壁을 撤廢하고 世界의再建을 主張할것이라고 豫想되나 戴冠式終了와 同時에 首相의印綬를띨 췸발린現藏相이國際經濟會議의 招集에는 强硬히 反對하고잇다하므로 急速한 會議招集은 期待할수 업다 췸발린藏相은 前回 國際經濟會議가 通貨安定에 蹉跌되여 決裂된것을 熟知하고 잇스므로 國際爲替가 安定치 안는以上 會議를 開催하더라도 實質로 關稅障壁의 改訂을 討議할수는 업다는 意向이라고 傳하여

政府는 戴冠式 및 英帝國會議 國際經濟會議의 具體案에 對하야 檢討를 加할것이라고 觀測되나 그러나 國際平和會議招請은 國際政局의 危機打開의 唯一한 方策이라고 觀測되므로 會議招請의 原則에는 各國政府에 異議업고 外交機關을 通하야 活潑한 準備工作 進行될것이다 獨逸經濟相 샤하트博士는 過般 브랏셀에서 白耳義銀行 프랑크 總裁와 會見한直後白耳義 伊太利銀行의 앗쏘오리-니 總裁와도 會見하엿는데 來五月 巴里에赴할 豫定임으로 通貨安定工作도 逐次 進捗될것이라고 觀測된다

政府米買受申請殺到

【東京電話同盟】十九日分의 公定價格에依한 政府米買受申請은 一擧로 一萬二千五百餘俵나되엿는데 昨年十一月以來累計는 二萬八千餘俵에 達하엿다 如斯한 期節外의 買受申請殺到는 淸算米昂騰에 基한 地方農業倉庫의 齎搭 其他理由에 基한 不足을 反映한것으로 觀測되는데 新潟에서 十一年産米의 一千六百餘俵의 申請이 現在米價로보아 採算外인것은 明白함으로 淸算强硬側의 제스추어가아닌가 觀測하는側도만타

防空思想普及에 各道에서도施設

國民防空法의 實施와 더부러 總督府에서는 文書課에 防空係를新設하고 半島의 國民防空事務를 統括하기로되엿는데 半島民衆의 防空思想普及은 아직幼稚함으로 此際 더욱徹底시킴이 必要하다고 認定하고 二十日 知事會議에서 總督指示로서 各道의 積極的防空思想의 普及徹底에 努力할것을 明白히하엿다 이에依하야 各道知事는 歸任後各地의 實情에비추워 防空思想普及에 具體的方策을 세우기로되엿다

滿國名譽總領事 朴榮喆氏로任命

【新京廿日發同盟】滿洲國政府에서는 朝滿通商關係의 緊密化에 鑑하야 今般京城에滿洲國總領事를 設置하기로되야 二十一日張國務總理의 入京을압두고 二十日附로써 朴榮喆氏를 初代名譽總領事로任命하엿다

米國으로現送하는 第二次金은五千萬圓
第一回는二十一日神戶發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 在外資金을 補充코저 約五千萬圓을 米國으로 第二次金現送을하게되여 그第一回로 二十一日神戶出帆의 商船關西丸으로 約一千六百萬圓을싯고 殘餘는 二便船으로 現送하게되엿다 右에關하야大藏省에서는左와如한當局談을 發表하엿다

政府는 曩者在外資金을 補充키爲하야 金現送을 行하엿든바 今回다시五千萬圓餘의 金을 現送하기로 決定하엿다 現在의 日本通貨制度下에서는相當한 量의 金을 保有維持함이 必要함은 勿論이나 國防充實과 其他政策을 遂行하기爲하야 生産力充實途上에 잇는 日本으로서는 必要한 物資輸入을 爲하야 若干의 金을 現送하야 在外資金을 保有함은 不得己한 政策이라고밋는다 다만 金現送에伴한 內外影響에對하야는 愼重한 用意를合이 必要하며 特히 根本的으로國際借款을 調整하야 적어도日本通貨政策을 危殆케함과가튼 事態의 發生을 避할것은 勿論이다 政府는 이點에對하야 國民의 協力을엇고 充分히 善處할것을 希望하는바이다

今回現送金은 日銀勘定으로付送

【東京電話同盟】第二次金現送은 二十一日神戶出帆의 關西丸으로 第一回로付送하게되엿는데 今回는 三回에分割하야現送하게될터이다 前回는 國庫勘定으로서付送하엿슴에反하야 今回는日銀勘定으로現送하게되엿다 即第七十議會에서通過한 日銀金買入法第五條의改正에 基하야 從來는 國庫勘定에 依하지아니하면 處分할수업섯스나 今回改正으로 日銀勘定에 依하야 現送하게된것인데 現送金은 前回와가티 紐育에 送付되여 爲替資金에 充當케될터이라한다

怪飛行機數臺
三國國境方面偵察

【오스로十九日發同盟】諾威、瑞典、芬蘭三國國境方面에서는 數日來 夜陰을타서 國籍不明의 怪飛行機數臺가 頻히飛來하야 偵察飛行을 敢行하고잇서 諸威市民은 戰爭이가갑다는 豫感에戰戰兢兢한狀態이다 또諸威北岸水域에잇서서도 某國海軍이 極秘裡에 海軍演習을 行하고잇다고 傳한다 諸威軍事專門家는 蘇獨兩國軍이 相戰하는境遇에는 諸威北海岸은 반드시 兩國間의衝突場所로 化하야 諸威領土는危殆에瀕할것이라는意見을述하엿다

辭令

總督府技手 高尾 國助
任總督府技師(七等)
命內務局勤務

道視學官(京畿) 安岡源太郞
任總督府視學官(四等)
命學務局勤務

海州公立女高普校長兼教諭 伊藤 文治
任總督府道視學官(四等)
命全羅北道在勤

龍中教諭 古賀 遠義
任公立女高普校長兼教諭(四等)
補海州公立女高普校長

道視學官(全北) 藤澤秀三郞
命京畿道在勤

鐵道局技師 田村梅治郞
陞叙高等官五等

專賣局事務官 朝倉 昇
陞叙高等官三等

陸軍軍醫中尉 粟田口四郞
任朝鮮道立醫院醫官(七等)
命忠淸南道在勤

任朝鮮土木技師(七等待遇) 浦邊 淸麿
補咸鏡北道土木技師

任朝鮮土木技師(七等待遇) 柳川 豐三
補平安南道土木技師

全北道公立小學校長 松島 寬
全北道公普校長 花木光男

高等官七等待遇
總督府通譯官 小野 綱方
依願免本官

人事·集會

◀李錫九氏(同德女高校主)二十日午前二時 府內寬勳町八十四番地 自宅에서 遭外艱 葬儀는 二十六日擧行

夕刊後市況 二十日

◆朝取短期◆

	後引	高價	低價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紙	—	[illegible]	[illegible]
日鑛	—	[illegible]	[illegible]
帝人	—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

	後引	高價	低價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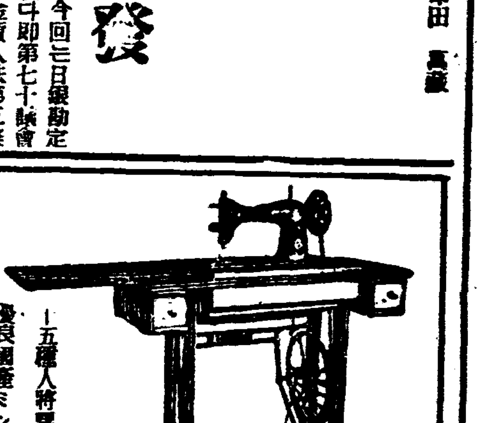
	後引	高價	低價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淺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

	後引		後引
東株	[illegible]	同新	[illegible]
鍾紡	[illegible]	鍾新	[illegible]
大株	[illegible]	大新	[illegible]
日糖	[illegible]	日產	[illegible]
郵船	[illegible]	同新	[illegible]

◆橫濱 生系 後引◆ 當限 八五八〇〇 先限 八四七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八二九〇 先限 八三〇〇



(滿鮮各地特約代理店募集)
型錄請求次第進呈
大阪府京町二丁目 大原商會 電話三七三番 振替京城二〇四二番
御商 ミシン機械及部分品各種 手提金庫 金錢登錄器

朝鮮、支那、文獻 書籍 高價賣買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金星書院 電話本局四〇四三番
御下命次第參上

好職業 自宅机上で出來る
遠近男女の別なく誰にでも自宅机上で出來る趣味と實益を兼ねる年中無休永續する好副業を勤人學生婦女子に最適の方面に指導す 希望の方はハガキにて申込め 詳細說明書は無代進呈
大和生駒町 博文社

朝鮮語學會推奬 朝鮮語綴字要覽
崔胤善先生著 立文社
맞춤법을모르는이 누구나 알기쉽게 배우는 기계
定價送料注文 京城府敦化町

恩給 最長期及短期共 恩給受取人の便を計り特別有利敏速取扱
京城鍾路三丁目七七 鄭一會

開業記念特賣 自四月十七日 至四月廿五日
特賣種目 美術額椽 高級刺繡品 各種繪畫
英美堂 慶雲町一〇一番地 電光③一六七二番

堅實家庭工業
內外地를勿論하고日常消耗品으로販路는有하고生活安定을도모할수잇는小資本으로된工業을提供함 單히年中不就業者도自宅에서製造하야永久히製品을引受함
(案內書無代進呈)
大阪北區空心町二丁目 株式會社 大同貿易商事 電話堀川五五〇番

轉移擴張
科喉咽鼻耳眼變起鄭
京城府安國町155 電光2521番
(별궁러쪽동) (別館東側) 入院室完備

官費補助學生募集 日本飛行學校
補助金下附、陸軍航空下士官、特校選級恩典アリ 規則はがきニテ申込次第送付ス ◎東京市蒲田區

新然優秀絶對保責 中津式
アイスケーキ機
京城元町一電停前 中津式冷凍機第二實演所

우리高靈의慶北道會議員候補者로
生部又一氏를推薦함
高靈郡有權者一同
同友人一同

勿驚!! 全國物價의暴騰此際一萬足限하야從前價格三圓八拾錢으로提供함!

百四號純佛式
五大特長 原料優良 製品巧妙 外樣美麗 耐久絶對 賣物輕快
八十六號山トンビ式 現代靑年紳士의最適好品

短靴 三圓八拾錢均一
歷史는新世紀로 洋靴는新佛式으로 二十二號新佛式
甲皮는 山羊黑ボクス革 底革

今日文化는尖端에서 流線으로 今年의靑年向短靴도流線型으로 百六號流線型
中年紳士禮服用
三圓 短靴 ボタン式 八十五號

平安製革社 洋靴部
平壤府東大院里私書函八十七號 振替京城一九四三四番·電話一四二〇番

百十四號 女校靴 三圓五十錢 學生의 賣下케 歡迎함

體裁優美 耐久力强 全國中學校 推奬得意品
斷然四圓八十錢 二十七號男校靴
全國各 官廳及靑年團 男女中等學校 京鄕體育團體 一般運動具店 ……御指定 全鮮蹴球大會公認

옥쓰포드號 품별A五圓 B四 五十錢

蹴球靴四圓八十錢 (白·黃·黑色) 靴界의無敵 艦隊號平安式
特典 一 體育團體名으로 十足以上注文主에 一足씩비쓰로無代進呈

△寸法取하는法
此圖面과가티 鉛筆을곳추세우고 周圍를그리고 金尺에서 寸數로 一番二番三番을그려주시오 寸法에依하여 特製하는것이오니 寸法을꼭 그려주시요

◎注文方法
一、上記와如히足型을그리고 號數와靴名과住所氏名을明記하신後 送料로써郵便切手 三十九錢을 必히添付하여 書信注文하십시요

●特約同盟店募集
全國一郡一邑單位로 特約同盟店을募集하오니 店印을捺印하여 三錢切手添付로請求 次第同盟規約書無代進呈

型錄請求次第無代進呈

一芊一芊一花一 (昌慶苑에서)

昨日、水銀柱에狂調 最高二十六度四分

不連續線으로例年보다九度高

夜櫻入場者三萬餘名

花發多風雨

이십일경성지방에는 별안간 수은주가 최고 이십륙도사분까지 뛰어올르고 후적지근한 훈풍까지불어서 금년들며 처음으로팜을올리게하고이십일전부터웃기시작한벗꽃도 활적피어서 지금이 한창임으로 이십일저녁에는 창경원야앵을 구경하려들어간손이 무려삼만을돌파하야동대문방면을향해가는전차는 어떤차이고 초만원을일우며 자동차의물결은 창경원을향하고 흘러서 전장안이 꽃구경으로 뒤법석을하고잇는데 이십일밤아홉시오십분부터 비방울이하나식둘식떨어지기시작하야 아즉미처구경못간 사람의가슴을 서늘케하고잇다 화발다풍우(花發多風雨)격으로 혹시나 모진풍우가 불고 쏘다저서 못처럼구경하기 조케된 벗꽃을 짓밟지나 안흘가 념려하야 경성측후소원에게 날세다진을 하여보니 만주흑룡강유역일대에 칠백오십이미리의 저기압이잇고 그로부터 남만주、신의주(新義州)상해로 련하야 불련속선이 비겨잇고 서조선일대에는 칠백륙십미리의약한 저기압이 잇는관계로 서조선일대에는 소우가 내릴터인데 그다지 큰비는내리지안코 비가 온다하더라도 부실부실내린후 이십일일저녁때에는 개이겟다고한다

그리고 이십일의 최고온도이십륙도사분은 례년에 비교하야 약구도나 높은괴후라고도 할수잇는데 이것은 고기압이 일본남해상에잇서서 그곳으로부터 후적지근한 남풍이부러온 관계로서 이가튼날세는 오래는 계속지안흘터로 비가 좀내리면 다시평상시가티 온도도내리게 되리라고한다

兒童愛護週間

兒童과姙婦에게 官設各病院公開

昌慶苑과科學館도無料로

五月二日부터八日까지

조선 사회사업협회(朝鮮社會事業協會)에서는 오는 오월오일 아동애호주간(兒童愛護週間)을 전후하야 다음과가튼 아동애호에 각종행사를 할터이며 각도 당국에서는 한때에는 어린아동 구호 [illegible] 보하야 동시에 재신에 이상잇는아동 등에대한것을 조사하야 보호에 [illegible] 할터이며 선체허약아동、영양불량아동 빈곤한임산부(姙産婦)와 빈곤한 아동들에게는 특히무료진찰에 진력할터이며 근래아동 정신방면에 [illegible] 아동보호 [illegible] 악풍을퇴치하며 취학시험지옥에서 고민하는아동을 위하야 만전의보호책을 강구하야 실시 하기로하얏는데 그내용인즉 십륙세 이하의 아동은 아모리 그부모가 로동시장에 내놋트래도 이것은 사회적으로제한하는동시에 관공서에서는 도덕적으로 저지할것이며 취학시험지옥에서 고민하는 등에대하야는 학교또는학부형과련락하야 시험을되도록간이하게하는동시에 준비공부를 되도록폐지하야 아동건강에 관계이업도록할것등에대하야 금년부터 최선의로력을다하기로된것이다

◆昌慶苑=五月七、八日兩日間午前八時부터 午後五時까지十歲未滿兒童及同伴大人一人限無料入場

◆京城大學附屬病院=五月三日부터八日까지兒童及姙婦無料診察

◆京城醫專病院=五月五日兒童及姙婦無料診察

◆京城府民病院=五月二日부터八日까지 兒童及姙婦無料診察

◆京城齒科醫專病院=五月二日부터八日까지兒童口腔分科無料診察

◆朝鮮科學館=五月三日부터 八日까지 十歲未滿兒童及同伴大人一人限無料觀覽

◆赤十字病院=四日姙婦及兒童無料診察

◆龍山鐵道病院=五月二日부터八日까지 兒童及姙婦無料診察

◆高麗病院=五月二日부터八日까지兒童及姙婦無料診察

尙州郡、强盜 現金廿圓奪去

【尙州】지난십칠일 오전한시경에 경북상주군 모서면백학리(牟西面白鶴里) 조항용(趙項用)의집에 장정한명이 침입하야 돈을내라 만약돈을아니내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현금이십원을 강탈하여가지고 도망하여 바리엿다 이급보를바든 당지경찰관주재소와 상주경찰서에서는 사방으로 조사중이나 아직범인은 오리무중이라한다

殺人魔敎 白白敎餘譚 (4)

淫祠의祭壇에오르를 '侍女' '名目無垢少女'

憧憬의서울! 大院任恩寵을엇고저 魔窟로모혀드는無辜蒼氓!

教主全龍海淫虐篇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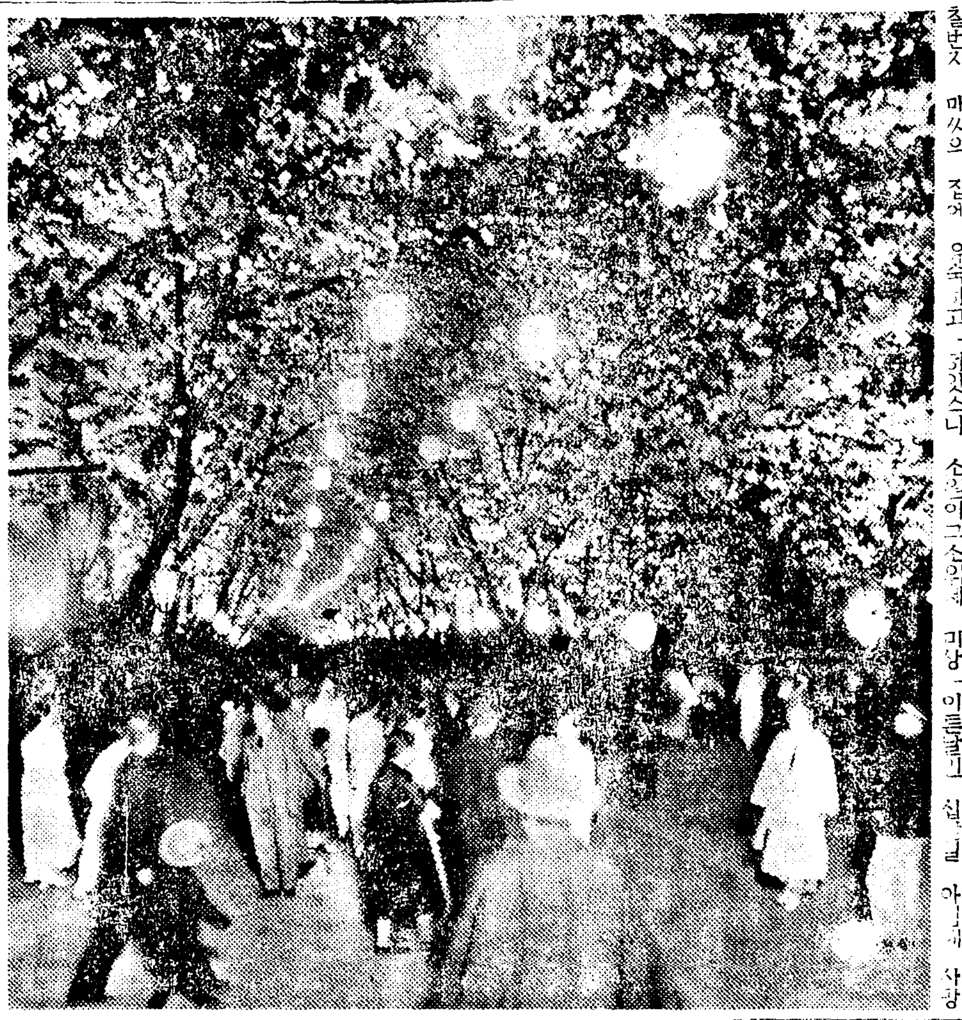
◇……교주 전룡해(全龍海)(五三)가 그리고간음 음학(淫虐)무쌍한그의 사적생활을 그리기전에우리는 몬저 그가 어떠한 인물이엇든가를 잠간 아러둘필요가잇다 그는백도교(白道敎) 주 평북영변(寧邊)출생 전정운(全延云)의둘째아들로태여낫스니 어려슬때부터 호흡한것은 협잡종교(?)의 분위기이다 근세조선에서 성세를떠인 모든 사교(邪敎)와 가티 백도교도 역시철저한근거를 가진 교지라고는업고 다만도탄에서 헤매이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정감록(鄭鑑錄)식의 감언디설로 불원한장래에 안락한 세상이될것을 예언하야 교도되기를 유인한후에는 재산을속여 사복을 채우는것을 일삼엇스며 한편으로 교도의부녀자를 롱락할기회를엿보는것이엇다 아들룡해가 어찌이마술(魔術)에 관심치안흘수 잇섯스랴! 대정팔년 백도교주가 병사하엿슬때 그는 스물네살의 투지만만한 청년이엿다、여자의 책동이 효과를어더 대정 십이년에는 백도교가 분열되여 문제의 백백교(白白敎)와 인천교(人天敎)로 갈렷으니 그때부터 백백교의 대표자는 표면으로는 차병간(車秉幹)이엿으나 배후에잇서 모든것을 책동한것은 전룡해그자엿다

◇……소화오년칠월 백백교재일차 탄압이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加平郡北面赤木里)오십삼번지 본부를 중심으로 내리자 교주 전룡해는 교묘히검거망을 버서나 대담하게도 경성으로 드러왓다 양옥으로 열관한 소름이끼치는 밀교(密敎)교주로서의 악귀가튼 살인극과 색마적란행은 만천을 자랑하는 경찰력을 비웃는듯이 경성을본무대로 전개된것이다

×

◇……그는 충참모격인 리경득(李敬得)(五三)、리순문(李順文)(五三)、문봉조(文奉朝)(五三)등경복의 간부십여명을 중부조선일대 농촌벽지에 파견하야 교도획득하는것과가튼 열의와 교묘한 수단으로 색(色)의 탐색에전력을하얏다 그들의 마술에걸린 교도로서 남자는〃회격편〃에서 보는바와가티 종처럼『대원님』(大院任)의 얼굴조차 구경하기도 전에 몬저 그독수에 걸려 애처러운 최후를마치는것이 그들의운명이엿스나 여자교도는 지극히 간단한 수속으로 대원님에게(承顔)할수잇섯스니 승안이 곳정조(貞操)를 제공하는 직전행사인줄이야 누구라알엇스랴!

그는 섬뻐간부들을 지방에 파견하야 몬저 얼골이 어여쁜 교도부녀를 조사한뒤에는 그들의 부모되는사람에게 시녀(侍女)로 제공하면 장차오는 백백교천하에서는 특히 우대를 한다는말솜씨를 밋기로 교도의 딸들서울로 오게한다 모든류사종교단체(類似宗敎團體)에 잇서서 시녀가족첩(妾)을의미하는 이상 백백교에 잇서서는 시녀라는일홈은 첩이란말을 미화한것밧게 안되는것이다 영예와 동경에가슴을 태우며〃대원님의시녀〃로 서울에닷자 그들은곳 십복의간부들에게이끌려 앵정정(櫻井町)에잇는마굴대원님집으로 입문을하게된다 두근거리는가슴을 억지로참으며 정성과 엄숙을다하야 대원님에게 머리를숙으리는 그순간! 이처녀의 전운명은 결정되고야 마는것이다 몸맵시가 곱고 얼골이 어엽버 대원님의 금선(琴線)에〃탁치〃하는 여성은 그집에 머무르게하고 그러치못한 사람은 곳간부를불러 그들의자유처분에 맷기는 것이엿다 교주이하 간부들의 성적 혼란과 음란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사진은 만개한 벗꽃과 꽃향기에 도취한 사람들)

七歲女兒行方不明

북미창정 팔십팔번지 조일수(趙日壽)씨의딸 동옥(東玉)(七)은동양극장(東洋劇場)압에서 행방을 알수업게 되엿다는데 동은얼골에 목미테는 동전한푼가량되는데인자욱이 잇고 단발하엿는데옷은 분홍저고리에 목세루검정치마를입엇고 키는보통키요 분홍고무구두를신엇다 한다

滿朔된中年婦 〃뻐쓰〃에서落傷

醫專病院에入院、應急治療

昨夕、醫專病院入口에서

이십일오후일곱시사십분쯤하야 부내명륜정(明倫町)이정목사십번지 김씨(金氏)(三一)는 광화문통의전병원압〃뻐스〃정류장에서 동소문으로가는 경전제삼천십이호〃뻐쓰〃를 타다가 미처승강대에올르지 못하여서 잘붓잡지를 못하엿슬때에 차장이 신호를하야 별안간떠나는바람에 그는승강대에서 떠러저서 다리에 이주간가량 치료할상처를 바덧는데 임신십개월이나된 무거운몸이라 일시중태에빠젓섯스나 의전병원에 데려다가 응급치료를한결과 어린애에게는 별이상이 업겟다고한다

一圓小爲替를 廿圓으로僞造

犯人은仁川署서逮捕

【仁川】소위체액면을 교묘히 위조하야 유흥에 랑비한자——본적을 경성부 신당정(京城府新堂町)에두고 화평정(花平町)백이십칠번지 매씨의 집에 우숙하고 잇는 최희원(崔熙元)(二四)은 지난십칠일 오후한시경 이십원액면의소위체를가지고 금곡정(金谷町)우편소에와 현금과밧구려고 하얏스나 [illegible] 그소위체에 [illegible]한점을 발견하야 마침내경찰의 신세를 밧게까지되엿다는대 취조에따라 발각된사실에의하면 일원소위체를가지고 이십원으로위조한것인데 위조방법이 교묘하야 보통안목으로는 능히분간할수업는정도이엿다하며 범행건수도 전후십여건에달한다한다

家庭不和로— 老人飮毒自殺

【全州】전주부내 청수정 류상수(柳相洙)의집에서는 지난십칠일 정읍(井邑)으로부터 친족이된다는 류희상(柳希相)(六七)이란 노인이 차저와서 쥐잡는약을먹고 고민하는것을 집안사람들이 알고 놀래여 전주의원에 운반하야 응급치료를 하얏스나 그 이튼날 [illegible] 사망하얏다는데 원인은 가정불화인듯하다고한다

兩敎授金一封寄附

대곡경성제대교수(大谷京城帝大敎授)와웅본경성제국대학조교수(熊本京城帝國大學助敎授)는령식(令息)일주기를 당하야 조선사회사업협회(朝鮮社會事業協會)에 금일봉식을 기부 하얏다고한다

『簡保』百萬突破 記念宣傳隊出動

조선의 간이보험은 그동안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야 대망의백만건을 돌파하얏슴으로 경성분장국이이를 기념하고 동시에선전을 하기위하야 활동사진건강상담기타의 종합대선전네를 조직하야 오는이십사일부터 오월일일까지 다음의 각처를 순행키로 되엇다。

◆四月二十四日 春川 活動寫眞 紙芝居 ◆同二十五日 華川
同 同 健康相談 ◆同二十六日 華川
楊口 同 同 同 ◆同二十七日
麟蹄 同 同 同 ◆同二十八日
城山 同 同 同 ◆同二十九日
瑞石 同 同 同 ◆同三十日
洪川 同 同 同 ◆五月一日
楊平 同 同 同

土塊가떠러저 人夫三名死傷

【鎭南浦】지난십구일오전일곱시삼십분경진남포한두리(漢頭里)대창조(大倉組)토지 매립(埋立)공사장에서 약십오척되는토궤(土塊)가문허지면서 그곳에서일하든인부하신명화(申明化)(二?)는 즉사하고 송룡수(宋龍洙)(三?) 리백석(李白石)(二?)두명은 중상을바더서 방금도립진남포의원에 입원치료중인데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東銀二萬圓事件의 柳寅明繼續取調

派生的事實은업는듯

동일은행 이만원도난사건은 그후 종로서에서 류인명(柳寅明)(二七)의 취조를 계속하고잇스나 원체 은행내부의 복잡한관계로 이의 증거소집에 몰두하고잇서 은행당국자를 식혀서 그가 횡령소비한금액을 정산중(精算中)이라고한다 그리고 일부에 전하고잇는바와가튼 그은행 내부의 복잡한관계를 배경으로한 이가튼 새사실은 아즉 발견되지안코 따라서 현재까지의 형편으로는 이이상 사건내용이 새로히 전개될것갓지는안다고한다

朝鮮商業美術協會

官民協同으로創立

조선의 상업미술(商業美術)은 내지에 비하면 적지안케뒤떠러저잇슴을 절실히느낀 총독부에서는 이번에 문서과(文書課) 상공과(商工課) 삼월(三越) 삼중정(三中井) 화신(和信) 철도국(鐵道局)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조선상업미술협회(朝鮮商業美術協會)를 창설하고자 십사일 오후사시 경성상공회의소(京城商議)에서 협의회를열고 여러가지 준비적협의를하얏는데 이것은 선진도시의 경향을가미한 조선독자적 립장에서 상업선전의미술화 상품진렬의 미술화등 기타 상업의 전면적미술화를창려하는상설기관이다

埋立工事場에서 人夫一名卽死

【扶安】지난십륙일 오후한시경에 전북부안읍내 선은리(仙隱里) 매립공사장에서 흙을파다가 흙덩어리가 문어지는바람에 그곳에서 일하고잇든인부 상서면감교리(上西面甘橋里)사는 윤희태(尹嘉泰)(三○)가 즉사햇다는데 공의가 현장에가서 응급수당을 할새이도 업섯다하며 수일전에도 그공사장에서 인부일명이부상을 당한일이잇다고한다。

勞働者等二萬名에 膓窒扶斯豫防注射

【羅南】함경북도 위생과에서는 전염병의〃씨—즌〃을 마지하야 발생되기전에 예방을 하고저 위선오월초순부터 도내각지를 순회하면서 장질부사(膓窒扶斯)예방주사를 시행하리라한다 이번엔 특히주력을 집단적로동자와 접객업자(接客業者)층에 두고 이들약이만여명에 시행하리라한다

全羅線脫線騷動 三時間後復舊

【全州】지난십팔일오후 전라선(全羅線)곡성(谷城) 침곡(寢谷)간에서 제삼백륙십칠호 렬차가 탈선되엇섯는데 다행히 승객들은 무사하얏스나 이렬차는 전주역 오후열시 이십분발 일본내지의 각선접속렬차로 세시간동안나 연착이 되얏스므로 전주역에서는 자동차로 리리(裡里)까지 승객과 화물을 운반하는등대혼잡을 일우웟다고한다

咸興放送局

九月부터放送開始

【咸興】대망의 함흥방송국은지난 십륙일부로 인가가 나와서 이제는 공공사에 착수할터인대 장소는 반룡산(盤龍山)꼭대기의 전망대(展望臺)가 잇는곳이며 전파는오백〃왓트〃라고한다 그리고 준공은 오는팔월하순으로 방송개시는 느저도 구월상순부터 시작하게 될터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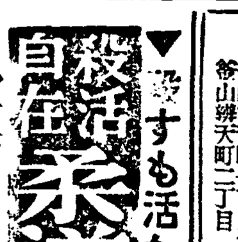
堅實職業
紙袋製造は家庭にて男女不問 確實取引
簡單に出來○年中無休○原紙供給し○製品は永久に現金買取致します御希望の方は製袋引取保證代理店募集
內書無代進呈致します 大阪市天王寺區桃谷驛前電停前
太陽社營業部

近代人必需貴重品を紹介す
調產 防毒 サック 大價 出賣 原價
(A)ラツキースキン 一打……¥.50 三打……¥1.20
(B)ナナースキン 一打……¥.70 三打……¥1.80
(C)コントラスキン 一打……¥.90 三打……¥2.40
(D)アニマルスキン 一打……¥1.00 三打……¥2.80
(E)ダイヤスキン 一打……¥1.20 三打……¥3.20
(F)フイツシユスキン 一枚……¥.90 五枚……¥4.20 一打……¥9.00
威よくじが絕對安全●性病豫防產兒調節に
註文ハ必ズ前金代 註文ニ限ル。引註文ハ謝絕ス 寄送料金十錢也
Ⓑ ビオス商會 東京淀橋上落合二ノ六七 振替東京一一二七〇〇

勿驚? 勿笑!
獨逸사람의솜씨
獨逸汽車票夜光時計
朝鮮初步宣傳(白面同價)
이時計의일흠이 汽車票이니만큼 獨逸鐵道局員의專用品 國際洋行에서 安價奉仕品으로 特選한것이다 ◉百聞不如一見 卽注文必試可 夜光은夜間指時燦爛 十七型 特別安價 四圓 全部先金送料負擔
安東縣舊市街 國際洋行通信販賣部 電話208番 振替口座京城30602番

Nozensei
正當한治療法
코 흘리고 메는대
코가흐르고 닫기고 냄새가 고약하고 마르고 냄새를 모르는 사람은蓄膿症、肥厚性、鼻炎、鼻加答兒…等의 惡性鼻病이 發生한證據니 人相이 낫부고 頭痛、頭重으로 記憶力、思考力이 異常하리만큼 衰하고 눈、귀、胃腸에 種種의 餘病이 생긴다。
◉코도 身體도 人相도 갓버지는무서운 鼻病을 아는法 ◉醫學上의빠르고正當한手當法은 冊子 鼻病解 를보면 누구나 알수잇다 이新聞을 葉書에 記入하고 申込하면 無代送呈한다。
東京市芝區南佐久間町二ノ二 確報堂 藥品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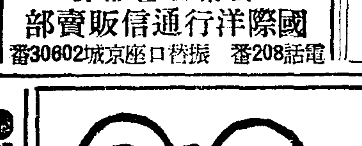
京城婦人病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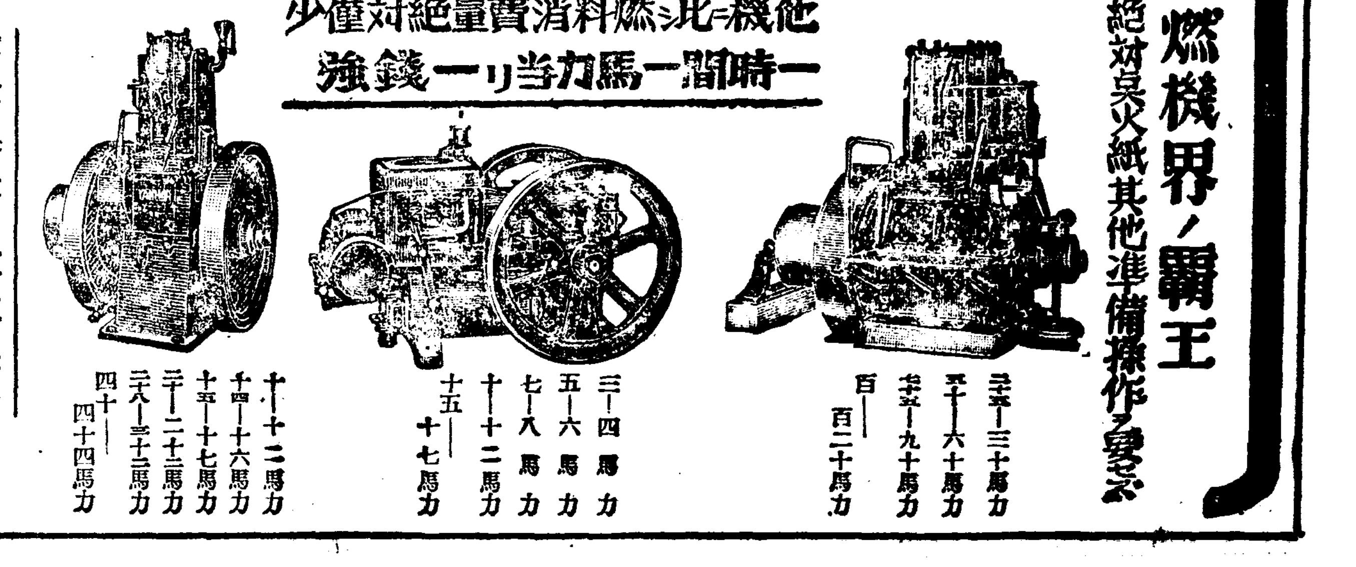
▼殺すも活かすも思ひのまゝ!
◆天下公許の術▲一讀誰にもスグ出來る極意を公開!
自任 殺活 柔道極意新發範

一圓廿錢
發賣元 大阪市西成區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陰萎·勃起不良·不感症
中井醫學博士創製·五大博士推奨
セーブレビン (세부레빈)
最新發明局○塗布藥

適應症 陰萎·勃起不良 性感增進·生殖器短小 不感症·分泌減少
(男女共用)
發賣元 合資會社 天醫堂
代理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新井藥房

●朝鮮의裁縫을機械化하야大發明하얏다
裁縫ミシン
△七세의 小兒라도 能히 使用할수잇다
아·모·리·서·투·른·사·람·이·라·도 어린아해나 로인이나 극히간단하야 자미잇게 바누질할수잇는 朝鮮裁縫미싱이다
使用이簡易한것은 아이들을 쓰는것과 호로 밀기만하면 제절로 박어지며 박은자리가 조금도 다름이업스며 明細나 羅紗가튼것도 마음대로完全하게 박을수잇다
大特賣 (替針附)(一臺代金)……三圓八十錢
名古屋市西區傳馬町三丁目
製造元 中島商事株式會社 電話本局七八番·四五二六番
◎◎◎◎◎◎【特約店大募集】


セランス醫專病院 眼科
檢眼無料 限學生
京城驛前 電(本)五一二二
◉急告 世富蘭偲란商號를使用하야奸利를取하는 奸商이 京城、平壤等地에有하오니 諸賢은照亮하시옵소서

ヤンマーデーゼルエンジン
内燃機界ノ覇王
絶對吳火紙其他準備操作ヲ要セズ
他機ニ比シ燃料消費量絶對僅少
一時間一馬力当リ一錢強

三十五—三十馬力 五十—六十馬力 七十五—九十馬力 百—百二十馬力
三—四馬力 五—六馬力 七—八馬力 十—十二馬力 十五—十七馬力
十一—十二馬力 十四—十六馬力 十五—十七馬力 二十—二十二馬力 二十六—三十二馬力 四十—四十四馬力
大量製產·在庫豊富
型錄贈呈
京城府京城驛前 株式會社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本社·大阪市北區茶屋町 電話本局一〇〇三番

兒童愛護週間에

오는일일부터 팔일까지의 아동애호주간에는간이보험에서도 이에 참가하야 각간이보험건강상담소를 일반에게 개방하야 아동애호의 정신을 강조키로 되엇는데 주간중에는 하동과 젓먹이는물론이고 일반임산부에게도 무료로 건강상담과 진찰에 응할터이다

▲取扱時間 午前九時부터 午後四時까지

▲各地相談所所在場所 京城光化門通 光化門郵便局構內 仁川本町三丁目四番地 群山千代田町一丁目一〇一番地

六千五百圓豫算으로 市內八個橋梁修築

西四橋、水口橋、長橋、榮橋、龍山橋、旭橋等 鐵筋콩크리트或은石橋로

경성부에서는 금년도예산으로 륙천오백이십오원을 드려서 다음의 여덟곳에잇는 교통상 중요한 다리를 수선하기로되엿다한다

▲서사헌정(西四軒町)이십칠번지아페잇는 서사교(西四橋)는나무다리로 수선할터이며

▲광히정(光熙町)일정목팔십오번지아페잇는 수구교(水口橋)도나무다리로 수선할터이며

▲장교정청계천(淸溪川)에 가설되여잇는 장교(長橋)는 돌다리로 수선할터이며

▲영정욱천(旭川)에 가설되여잇는 영교(榮橋)는 철근콩크리트다리로 수선할터이며

▲역시 영정욱천에 가설되여잇는 룡산교(龍山橋)도 철근콩크리트로 수선할터이며

▲역시 영정욱천에 가설되여잇는 욱교(旭橋)도역시 철근콩크리트로수선할터이며

▲구경인도로(京仁道路)에잇는 제일도림교(第一道林橋)도 철근콩크리트로수선할터이고

▲본동정(本洞町)으로부터 동작정(銅雀町)에통하는 길에잇는 다리도 철근콩크리트로 수선하기로되엿다

景福宮벗꽃公開

경복궁의 벗꽃만개로 례년과가티 이십삼일부터 이십오일까지 매일오후 한시부터 다섯시까지 일반에게무료로 공개한다고한다

京畿道內서 五百餘名募集

長津水電行勞働者

함경남도장진강수력공사장(長津江水力電氣)에 보낼 로동자를 경기도사회계(社會係)에서 알선하야 도내개풍(開豐)파주(坡州)포천(抱川)강화(江華)룡인(龍仁)각군에서 백명식을 뽑아가지고 전부오백명을 오는이십사일에일려도 보내기로되엿다고한다

素砂에簡易學校

新設許可願提出

【素砂】경인선 소사역은 경인간 중앙지대요 장래의발전에유망을가지고잇는이때에 아동교육문제로 일반학부형들은 불안을 늣기지안흘수업섯스나 소사공립보통학교의 금년도신입학생들을 본다면 입학허가자 일백삼십팔명에 지원자가 이백삼십칠명이라하며 불합격자가 백명에달하엿다한다 이기회에 소사유지 최병희(崔炳熙)(二)씨는 금번신입학연의 불합격자와 상급학교의 불합격자의 아동을위하야 도당국에 소사간이학교 신설허가원을 제출하엿다하며 일반학부형들은 하루밧비 도당국의허가나오기만 고대한다고한다

市內三十個所下水道 年內로一齊改修

總延長八千四百餘米

경성부에서는 십칠만 팔천원의 림시예산으로 다음과 가티 부내 삼십개소 연장팔천사백사십오미돌의 하수도를 개수하기로 되엿는데 방금 차례로 공사에착수하고잇는중이다

▲인의천(仁義川) 동부로부터 경신학교(儆新學校)아페 이르는사이의연장 팔백오십구미돌과

▲장사정중앙(長沙町中央)에잇는 하수도연장륙백십구미돌과

▲명륜정(明倫町)이정목 고등상업학교(高商)부근의 하수도연장 륙백삼십칠미돌과

▲관철정(貫鐵町)중앙의연장구백십팔미돌과

▲죽첨보통학교(竹添普通學校)부근의연장 오백륙미돌과

▲장교정통(長橋町通)의 연장삼백팔십삼미돌과

▲수표정통(水標町通)의 연장이백팔십팔미돌과

▲대도정(大島町)서본원사(西本願寺)부근과 원정(元町)이정목개성좌(開城座)부근의 하수도연장 일천사백사십륙미돌과

▲본정(本町)삼정목 경성극장(京城劇場)부근의 하수도 사백미돌과

▲대화정(大和町)일정목 일출소학교(日出小學校)남쪽 하수도연장 일백구십오미돌과

▲다옥정(茶屋町)중앙에 잇는 하수도연장 오백팔십삼미돌과

▲교북정(橋北町)중앙에 잇는 하수도연장 륙백삼십구미돌과

▲옥인정(玉仁町)순화원(順化院)부근연장 륙백일미돌과

▲봉래정(蓬萊町)크로-륵의 하수도연장 삼백팔십일미돌이다

仁川某印刷所主人 仁川署에서檢擧

【仁川】인천서고등계에서는 언 내모인쇄소주인을 소환하야 계속적으로 극비밀리에 엄중취조중이라는대 탐문한바 부정인쇄에관한 사건인듯하다는바 사건은점점확대될듯하다한다

素砂發展助成會總會

【素砂】경인선소사에서는 소사역을 중심으로 설립한 소사발전조성회에서는 사월십륙일오후 세시부터 소사공회당에서 총회를개최하야 의장신부정웅(議長神部正雄)씨이하 유지다수가렬석하야 약두시간동안 총회를마첫다 그내용을 듯건대

一、농사시험장과 원잠종제조소사(所舍)리전에 대하야 금후의시설에관한 당해기성회와 협력할것

二、경인일체문제에관한 우리소사지방으로서 금후의 대책에관한건

三、소사를중심으로한 도로계획에관한건

四、간이실업학교신설에관한건

五、보건위생에관한단체설치의건

金屬看板은 모조리竊取

【仁川】군수〃인풀레〃경기를따라 작금의 철물가는 실로 그정도를 짐작지못할만큼 속등하고잇서 약십이삼할의 고가를 보이고잇서 근일 가두에는 철물호경기다니는〃룸펜〃의 그림자가 잡답하고잇다 이와한가지 시내를 횡행튼 좀도적조차 절도행각〃코-스〃를 철물계로 변하야 점두에걸리여잇든 금속간판의 도란이빈발하고 잇다 인천서에서는 각방으로 범인을 수사중이든바 지난십칠일 부내화평정(花平町)이백사십이번지조희원(趙熙元)(二)장은성(張銀成)등을 체포하야 엄중취조를 계속중이라는대 간판의 절도만도 십여건에 달한다고한다

二十八名定員에 候補者六十餘名

激烈한京畿道議選擧

오는오월선거에 일제히 시행될경기도회의원선거전은 점점날자가 박두함에따라 전운은 무르녹아가는데 이십일까지에벌서 이십팔명정원에 륙십명의 립후보가 잇섯다 선거위반도 벌서 두건이나 나타낫다고하며 전번에 비하야 훨신 립후보자가증가되여 상당한격전이 예상된다

陳泰潤氏作故

시내 본동정(本洞町)에 소재를둔 룡흥강습소(龍興講習所)는 대정십사년 대홍수로 말미아마 수해를당한 이촌동(二村洞)삼백여호 주민들의 피난지대인 부흥촌(復興村)에 무산아동의 교육을위하야 서진룡(徐鎭龍)외 수씨의 진력으로 창설하고 이래 십여년간만흔 남녀아동을 교양하여 오는중 로량진은로학교(鷺梁津恩露學校)에 흡수되엿는 진태윤(陳泰潤)씨가 무산아동교육상 뜻한바잇서 소화사년부터 가사를 불고하고 헌신적으로 교무를 전담하야오든중 불행이얼마전부터 신경쇠약으로 오래신음하다가약석의효과가업시 지난십칠일오후 오시삼십분에 삼십사세를 일기로 드듸여 불귀의객이되엿다는데 장의는강습소장으로거행한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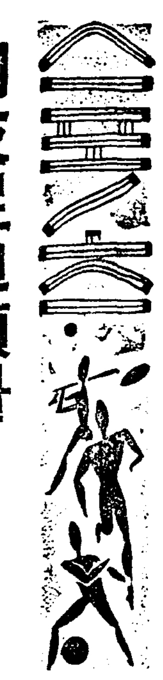
仁川

第一回 仁川商工聯合大運動會

▲時日 四月二十五日午前九時 於公設運動場

◇主催 仁川商工協會

◆後援 朝鮮日報仁川支局



明夜로迫頭한 아마拳鬪戰

申請은今日午後까지

全朝鮮아마듀어 拳鬪協會主催의第一回 全朝鮮아마듀어 拳鬪選手權大會는 明二十二日 午後七時부터 太平通朝鮮日報社講堂特設링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이날은京鄕各地에서 八十餘名勇士가參加하야 盛況을豫期하고잇다한다 그리고 出場選手一同의計體量과 相對者 抽籤은 今二十一日午後四時부터 水標町 東洋拳鬪會에서 行할터이라는바 無漏參集하기를 바란다고한다 同大會任員은다음과갓다

▲拳鬪大會任員

▲會長 玉璿珍 ▲本部委員 呂運弘 崔能鎭 崔在煥 張權 黃乙秀 李裔宰 金龍九 朴商賢 金德裕 洪聖俊 卓泳模 尹明烈 朴三祚 朱奉植 ▲審査委員 黃乙秀 金正學 李惠澤 金振秀 金德銀 金明坤 金明德 鄭惠源 金德仁 金錫宇 金昌燁 ▲計時委員 金錫宇 金明坤 金德仁 馬灝玉 ▲記錄委員 金觀德 李裔宰 高鳳梧 徐廷植 朴只然 ▲通知委員 李鍾琬 徐錫奉 ▲進行委員 金龍九 李惠澤 金昌燁 ▲庶務委員 李

在東 權寧禹

全日本의覇者 早大陣勢

普專、延專猛練習

지난一月에 東京서열린 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에서 普專을 이긴다음 延專을이긴 京都帝大를 손쉽게누르고 覇者로서君臨한 早大팀을마지하야 來二十九日(對延專)五月一日(對普專) 五月二日(對全京城)의 三日間京城運動場에서 今씨ー슨劈頭를裝飾할 豪華戰을 展開하기로되엿는데 早大멤버ー中의 宗像、橫山兩選手는李性求、廉殷鉉、張利鎭諸君과함께 伯林올림픽에 出場하엿든名將들로서이들을主力部隊로한 早大軍의 實力은 日本籠球史上에 일직이볼수업는 最强팀이라한다 一行을〃홈・코ー트〃에 마지하야 지난날의 憤敗를 雪辱하려는 普專과延專은 今春에入學한超中學級의 俊銳들을加한 新陣容을編成하야맹렬한練習을 거듭하고잇다

(寫眞은 早大籠球部)

▲監督吉田伸三 ▲마네저石澤淸弘 ▲主將佐藤榮一(G)秋田中 一米六四、▲選手田中義利(F)灘中(身長)一米六八 黑田重衛(C)島一中一米八〇、岡三郞(C)灘中一米八一、宗像卯一(G)大連一中一米七六、橫山堅七(F)新潟商一米七五、小田嘉一郞(G)新潟中一米七六、川原行雄(F)포ー리ー텍닉一米六六 大谷龍雄(F)札幌二中一米七六

徐君 勝負

大阪拳鬪協會主催의 春季拳鬪大會는 十八日午後一時부터 大阪天王寺音樂堂에서 擧行한바 이날徐廷權君은 秋本選手(大協)와 八回戰을行하야 無勝負로 마치엇다한다

女優野球團訪日!

米國映畵界의人氣를 독차지하고잇는 『베데이・칸손』孃이 引率하고잇는 聖林映畵女優野球團(軟式)이 今秋日本을訪問하야 興行試合을 行할터인바 聖林에서發表한바 同팀은 『로스앤젤스』를 九月七日『프레지덴트・후버ー』號로 出帆하야 日本到着은 九月末의豫定으로 日本에서 興行을마치고는 中國、香港、新嘉坡로轉戰할豫定이라고한다

長篇小說

어머니 【19】

李箕永 作 / 鄭玄雄 畵

第一、育嬰篇

청춘의유혹 (八)

봄빗은 차차 지터가서 미구에 꼿철이 닥처왓다。서울사람 시굴사람 할것업이 사방에서꼿구경꾼들이 밀녀들고 수얼거린다。

그러나 인숙은 변화업는 쓸쓸한 생활을 여전히 되푸리하면서 그날도 유치원에를 나갓섯다。저녁때 피곤한 몸으로 도라오라니까 부엌에서 밥붓짓든 행낭어멈이 호들갑스럽게 뛰여나오며 괴칠에서 웬편지를 끄내준다。

『아씨가 시굴 가섯서요 친정마나님이 귀끼섯다나유』

『아니 그게 무슨소리여! 옹?』

인숙은 깜작놀내여 총총히 피봉을 뜨더보앗다。과연 혜순의 필적으로 위독전보가 와서 황황이 나려가니 이삼일안으로곳 올라오겟지만 그동안 어멈에게 남편식사를 맥기기가 부실할것가트니 좀보살펴 달라는 부탁이다。그리고 조석을 따로 끄릴것업시 집에서 가티 먹게 하라는것이엇다。

인숙은 한편으로 놀라면서 다시 한편 으로는 그의 남편에 대한 애정을 부러워도하엿다。그러나 남의 신세를지기가 미안해서 대강찬꺼리를 만드러주고 그는 따로 저녁을 지엿다。

창규는 안해를 정거장까지 치송하고나서 학교로 다시 갓다가 그날은 해질무렵에 집으로 도라왓다。

그는 인숙이가 반찬꺼리를만드는것을보고 드러서는길로

『너무 불안스럽습니다!』

하고 의미잇는 미소를 띠우며 인사한다。

『뭘, 저역서 음식솜씨가 엇서야지요』

하고 인숙이도 마주 이러서며

『그런데 별안간 무슨병환으로 그러케……』

『녜 원래 로환이라요』

창규는 그런인사를 밧는사람으로서는 너무도 냉정하다 할만치 평시와가튼 표정으로

『그리고 본병이 잇서서 전부터 건강치못 햇다니까요』

『아직 도라가시든 안햇지요?』

『녜…… 전보까지 첫슬적에는 아마회춘하시진 못할겝니다』

『그리서서 어쩌나……』

어멈이 저녁상을 참기전에 인숙은 자기방으로 내려가랴할 때 그는 마치 주인아씨의 부탁을 충실히 직히라는 것처럼 저녁을 가치 먹자고 붓든다。건너방에서 그말을 듯고잇든 창규도 일부러 마루에까지 나오면서 한사하고 권한다。

『저 음식을 혼저먹으면 도무지 맛이업서 못먹는 버릇이 잇서요 어멈! 그럼 자네도정선생님이랑 안빵에서 함께자시도록하게』

하고 창규는 한참 피새를 놋는다。어멈은 주인의 말을 고맙게 드르면서 다시 인숙을붓들엇다。

그바람에 인숙은 할수업시자기가 따로짓든 저녁을 치워버리고 어멈과가티 상을 보앗다 어멈도 조아하고 창규도 건너방에서 만족한 기침소리를울려보낸다。

미구에 그들은 한방에서 저녁을 먹도록――어멈은 창규의 밥상은 아랫목으로 인숙의 그것은 윗목으로 갓다노코

『서방님 진지상 드려왓서유』

그말이 떠러지자 창규는 안빵으로 건너와서 상을 바더서 어멈은 밥그릇을 상미트로 나려노코 먹으라는것을 인숙이가 권해서 올려노코 먹게하엿다。

그는 그것이황송한것처럼 굿까지 몰편한동작을보이는것이 우수웟다。

인숙은 안심찬는 표정으로 잠간 창규를 마주보고 잇다가、다시 안저서 식칼을 들고 약념을 다지엇다。칼노마소리가 재미나게 바자를 마추엇다。그는 오래간만에 비로소 음식솜씨를 낼수잇는 반찬꺼리를 다루어보는것이 더욱 푸집한 생각이 들게한다。

창규는 건너방으로 드러가서 의관을 버서노코 밤은을 여러부첫다。

그는 참으로 더워서 그러는지 방안이 우울해서 그러는지 인숙은 그의 시선아페 자기의 뒷모양을 엿보게 하는것 어쩐지 북그러운 생각이들게 햇다。그래 그는 치마자락을 다시 염의고 자세를 고처서 단정히 안젓다。

창규는 바깟을 내다보며 맛잇게 담배를 피운다。그는 연신 인숙이의 뒷모양을 견눈질로 보앗다。

大阪天王寺のムシクダシ
岩井大和堂 セメンノ藥子

男女淋疾 蔘茸五淋錠

조흔家庭工業
信用잇는最高會社意氣잇는大事業에進出
資本金參拾萬圓
內外貿易株式會社

山羊乳 キング山羊乳
京城東小門外城北町
振替口座京城三六〇番

就職의最近道 是乃滿洲에서活躍할測量技士養成 附設滿洲語專門科
滿蒙測量學院

돈벌기大王 リード式穀物膨脹機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耳 鼓膜이안러진분은 人工鼓膜
耳鳴頭重하고귀가먹은분은
サンセイ商會

好職業

理研淸酒 新世界
(防腐劑를안너엇다)
目下特賣中
술맛도조홀세라 醉하는氣分 爽快한맛 明朗한氣分
大鮮釀造株式會社

武田製藥
願컨댄 가슴아리는 南無氏神보다 南無노루모
黃水(膽汁)가슴아리
ノルモザン錠 노루모잔
制酸과鎭痛 胃酸過多治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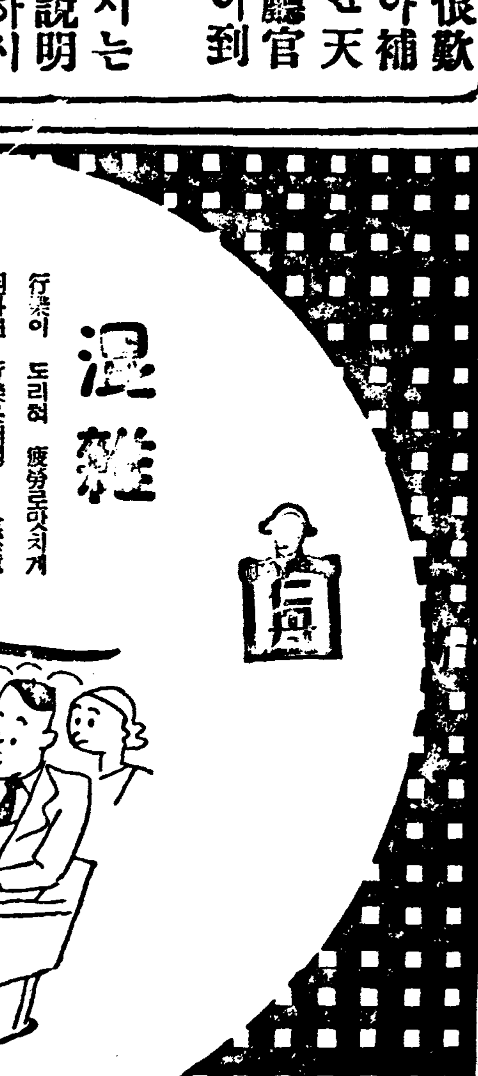
樺太廳官許 海狗腎 新品到着
老少를勿論하고 陽氣업서恨歎하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天惠的靈効를 가진樺太廳官許捕獲眞品海狗腎이到着하얏슴니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內容說明書請求하시면無料進呈함
明治四十四年日、英、米、露四個國의條約에基한全世界에唯一한元素!
堂々한實彈的眞品!
百發百中은이로두고하는말
朝鮮釜山府草梁町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九二二番

今も 昔も
効能で賣れる
七ふく ひえぐすり
大阪高津表門筋
本家七ふくや伊藤長兵衛

家庭用 キンカトール
芳香强力殺虫液

和洋服大型覆器 和洋服大型覆器
解体式洋服タンス
和洋服大型覆器 特價 九圓八十錢
解體式洋服欌 特價 十四圓五十錢
各種洋服タンス 製造直壽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混雜
仁丹



雙虹舞

方仁根 作
金奎澤 畵
【166】

雙虹舞 (六)

그이튼날오후에 경성역에서떠나는남행차는한강을지나 푸른벌판을 걷가리달리고잇섯다。 기차는언제나 게으르고시픈기색업시 신바람이나서 달리는 괴물이지만 오늘은 유심히도 경충거리며 춤거운듯 달리는것 가텃다 그도 그럴것이 자기등에 남녀두쌍의 가장행복스러운 우숨울싯고 가기때문이다。

오늘은 명월과 순철의 신혼여행이오 거기따라서 광훈과 은명도 가는것이엇다。

순철은 금강산으로 신혼여행을 가자커니 명월은 고향인평양으로 가자커니 의론이 분분하다가 은명이

『그럴것업시 우리시골로 갑시다』하고제의하니 광훈도

『참 그럿게 하는게 조켓군ー 우리도 마침 여름동안 거기가서 쉬려고하엿는데 어왕이면가치가지ー 우리집도 거기오순철씨집도 거기니 가서한여름동안 함께 재미이게 나는게어때?』

하엿다

『참말 그것이 조와요』하는명월의말에

『그거참 훌륭하군 그럼 그러케합시다』하고 순철도 찬성하엿든것이다。그래서 오늘 그들은 떠나는것이다。고지원의 내외는 딸의집을 직히고 잇스면서 역시신혼의 취미를 누리게 하엿다。

『오늘이 칠월 스무날이겟다』 하고 광훈이 물으니 창밧글내다 보고 잇든 순철이

『그러치오』하고 대답하엿다。

『그럼 바로 은명씨와 나와 오년전에 결혼하든 바로 그날이로군!』

『참 그러쿤요!』하고 은명이 대답하니

『어쩌문!』하고 명월이 손벽을 첫다。

은명은 우스며

『그럼 그도분도 신혼여행이지만・우리도 신혼여행이 처음이니까 역시 신혼여행이지요』하고 말하엿다。

광훈은 길게 숨을내쉬며

『그래서도 신혼여행이고 은명씨와나와는 어쩐지 새로 혼인한것가타ー그러니 역시 신혼여행이지』

하고 말하엿다。기차는 억개춤을 추듯 들석들석하고

『엄 그러쿠말구!』하며 다름질치는것가탓다。

『참말 그래요』하고 명월도방긋우스며 말하엿다。명월과 순철은 맛처다보고 빙긋웃고 광훈과은명도 맛처다보고 싱긋우섯다。그들의눈에는 행복과순결과 기쁨이넘처흘럿다。

『어머니! 아버지! 이거먹어ー』하고 천봉은 과자를 끄내어 광훈과은명에게 주어 그들은 빙그레웃고 바드려하니

『아니아니 입을 벌려』하고주지아니하엿다。할수업시 광훈과 은명이 입을버리니 천봉은 과자한개식 그입에 쏙쏙너허주고

『이번엔 아즈머니하고 아저씨하고ー자ー입을 벌려요』

순철과 명월도 입을 버리고 과자를 바드먹으려고 고개를 쑥 내밀엇다。 그러나 명월은 너무 우서워 벌린입이 오믈어젓다。 그들은 모다 깔깔웃고 천봉은 손벽을치고 경충거리며 우섯다 기차는 시원스럽게 벌판을 달린다。활작열어노흔 차창으로는 서늘한바람이 휘휘들어와 그들의얼굴을 부채질해주엇다。

저녁때 그들은 정다운 고향에 도착하엿다。

수림이 자오록하게 욱어진그들의 동내는 팔을쫙버리고 환영하는듯하엿다。하늘을 치밧고 섯는 설봉산은 메나이제나 조금도 변함업시 엄연하게서서잇다。그들은 그설봉산을 자애기픈 아버지를 처다보듯 바라보앗다。그들은 그동안 풍파도만코 변천도 만코 잘못도 만헛지만은 언제성스럽고 친착한설봉산은 그들을 조금도 책망하지안코 언자한 두팔을 쭉ー버리고 그의품에 안어주는듯하엿다。

그들은 설봉산밋 그들의 보금자리를 향하여올러갓다。좌우에 욱어진 숲속에서는 매미떼들이『여름의코ー러스』를하며그들을 환영하엿다。그매미떼의소리는 폭포처럼 쏘다저 그들을 상쾌하게 하엿다。바람에 산들산들나붓기는 나무입새들은 손짓을 하며 그들을 환호하는것가탓다。

그들은 박면장의 피와땀이엉긴 과일나무밧길로 들어섯다。과일나무에는 움붉웃한 과실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매달리엇다

그들은 거기를 지날때 우스며 도울엇다。

土木建築用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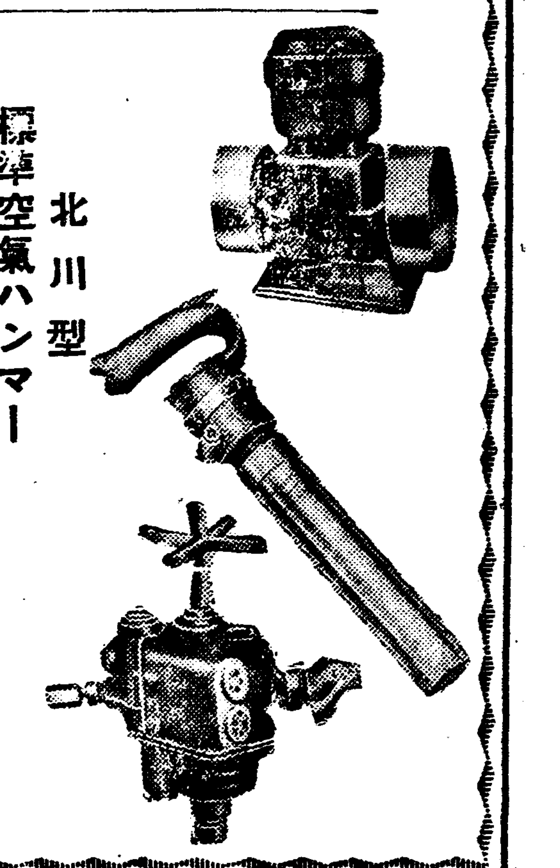
製品概目

『北川』型標準空氣ドリル
『北川』型標準空氣リベチンクハンマーコーキングハンマー
其他各種 空氣壓縮機ハンマー及ドリル等 ニユーマチツク部分品及同用工具一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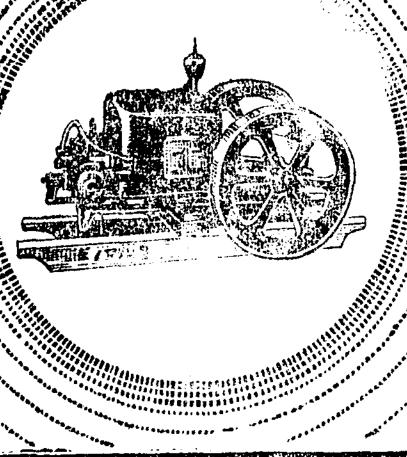
標準空氣ハンマー 北川型

修繕・加工도取扱합니다
【カタログ進呈】

株式會社
北川製作所
大阪市港區繁榮町一ノ六
電話西 五七八番 五〇二七番
出張所 東京市麴町區丸ビル八八三號
電話丸ノ內 一〇七三番 一九五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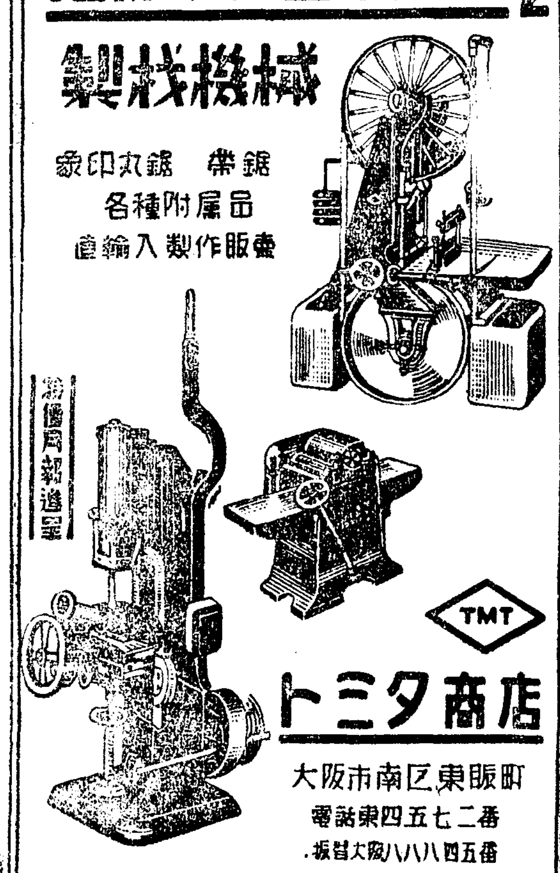


NIHON ENGINE WORKS
ヒノマル輕油發動機
買つて安心!一買つて滿足!
特約店募集
カタログ進呈
御照會ヲ乞フ



日本內燃機工作所
大阪市大正区大正通二丁目
電話櫻川七九七番 ★ 振替大阪三五二六番

高級木工機械と
製材機械
鋸 帶鋸 丸鋸 印象
各種附屬品
製作販賣 輸入直
特價月報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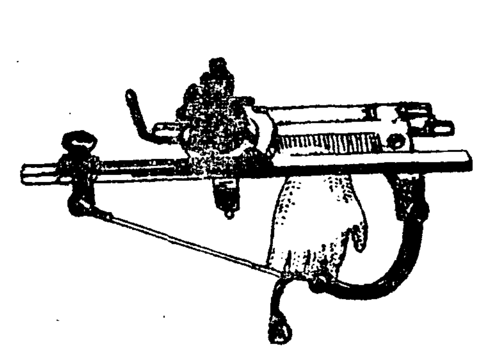


TMT
トミタ商店
大阪市南区東販町
電話東四五七二番
振替大阪八八八四五番

運動具
全般

大阪市南區西清水町十四
製造問屋 守上運動用品店
電話南四五四七
(型錄呈)振替大阪一八八〇一番

最新式 ロール自動式軍手編機械
絕對他의追從을不許함
全鮮特約店大募集(一道一店에限함)
希望者는十錢郵券要함 (型錄呈)
光星舍製作所
大阪市北區川崎町



櫻咲く頃 (앵화가필때)
頭痛、眩暈가盛할떔니다
婦人에게 特有한 어지러운증세도 이時季에 第一만타고합니다
婦人의 身體를 保護하는 喜谷實母散을 꼭 活用하서야합니다

全國藥店에잇다

主効
產前產後 四季感氣 足腰厥冷 惡阻 月經不順 脚氣浮腫 經期腹痛 流產早產 帶下 頭痛眩暈 子宮病 히스데리ー

產前產後에!
婦人良藥
喜谷實母散 (희곡실모산)

血液의循環을조케하십시다!

注意 類似品이多數잇스니喜谷에꼭注意하서야합니다

定價 一日分二十錢 三日分五十錢 七日分一圓 十四日分二圓 廿一日分四圓五十錢

東京市京橋區京橋一丁目 喜谷市郞右衛門商店

男女對抗座談會

男女文人이모혀 貞操、未亡人再婚可否、夫婦間倦怠期打開策等을 中心議題로 男論女駁 實로其勢不兩立의 一大舌戰이버러진 本誌의 特種記事엽니다☆☆☆☆

愚問賢答
一、先生의헨드빽속에는?
二、늘가지고십흐신물건은?
三、男便이늣게도라오는밤은?
四、男子들의가장미위할點?
金永愛・吳淑根・尹聖相 崔善福・金鏡淑・李敬媛・李俊淑・任貞赫

隨筆 春愁……李軒求

人間崔承喜의一面……毛允淑
다람쥐(鄕土有情記)……李善熙
그夫人의一生……申鼎言
朝鮮名女性과꼿……車相瓚

音樂鑑賞講座……金管
五月의健康法……趙東秀
初夏의女兒服……任貞赫
첫여름化粧法……吳淑根

立濟明氏家庭訪問記……記者
結婚과遺傳……鄭槿陽

朝鮮日報出版部發行
定價 二十錢(送料二錢)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女性 五月號
發賣中

躍進! 大躍進! 飛躍! 大飛躍! 本誌는號마다 發展되고 號마다 絕版이되여 五月號에드러 有志의 一大躍進을 決行하게되엿습니다

섬색씨의노래……金思燁
實話 엣모습……鄭順伊
◇女性界消息
◇世界女性展望
◇웃지맙시다

페지마다 자미잇고 옥실옥실한 記事로 가득채운五月號!

五月創作家特輯
코스모스와는庭園(中篇)……李泰俊
解春賦(短篇)……鄭飛石
風(短篇)……安懷南
近處(中篇)……蔡萬植

絕版되기前에 미리注文하서야됩니다
表紙……安夕影
揷畵……鄭玄雄
華麗한表紙와 아름다운揷畵로 五月號는 더욱燦爛!

五月女人의解剖圖

畫報
어머니의마음。季節을 압두고(江물은흐르건만、나물캐는아가씨들) 閑日四態。五月의발자최(山으로들노)。웨비가저러케작고만올까。

在京各國領事夫人訪問記

朝鮮女性의活動力을期待……(中華民國領事夫人)……王貴貞
朝鮮女性은表情이업다……(佛蘭西領事夫人)……드페르
朝鮮女性의衣服이조타……(合衆國領事夫人)……마ー쉬
朝鮮女性의針母와食母……(蘇聯邦領事夫人)……쏘피아

서울안에잇는 各國總領事 夫人을차저 그네의 눈으로 우리가보지못하고、깨닷지못한것을 들어 朝鮮을보고 朝鮮女性을 觀察한 숨김업는 告白記를 실어 다시금 反省할絶好의 機會를주는 快適의記事입니다。

設問
一、朝鮮女性의長點?
二、朝鮮女性의缺點은?
三、朝鮮女性의理想型은?
四、女性에게읽히고십흔册은?
☆☆☆
李一・李石薰・鄭芝溶 安懷南・李軒求・金基鎭・嚴興燮・安碩柱 李孝石・朴基采

平南女性의特徵(十三道女性巡禮記)……洪鍾仁

詩歌
漂泊……金達鎭
떠나간그……김명희

一莖草(女性讀本)……李殷相